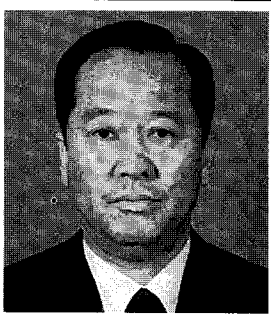


“피 방제! 이제 걱정없다”

성공을 위한 강박감과 두려움으로 고민



서 정 로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장 농약박사

피는 논에서 벼와 경쟁관계로 벼가 이용해야 할 양분, 생육공간의 침해 등으로 쌀 증산의 최대 걸림돌로서 쥐, 모기 등과 함께 인간의 3대 공적 이라고 일컫는 잡초이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벼 이앙후 30일경 피가 m²당 20포기만 있어도 쌀수량이 10%나 감수 된다고 하며, 피에 의한 수량감소를 줄이기 위해 벼가 익어가고 있는 피많은 논에서 피 이삭만 뽑아주는 인력제초작업이 농촌일손 돕기 차원에서 아직도 연례행사로 되풀이되고 있다.

피 제초효과가 큰 퀴크로락 제제가 공급되던 1995년까지만 해도 초기에 피 제초를 못했을 경우 후기에 이 약을 뿌리면 피 방제가 가능하였으나 뒷그루로 원예작물을 재배할 때 퀴크로락 성분의 잔류에 의한 피해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1996년에는 인력

제초 외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피에 효과 좋은 제초제 발굴 노력

퀴크로락성분이 잔류문제로 생산중단이 검토될 때 본인은 피에 방제효과가 좋은 제초제를 발굴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던중 1995년 7월 벼농사 중간평가때 영남농업시험장에서 피에 방제효과가 높은 2종의 제초제를 시험중에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담당 연구관의 설명을 듣고 포장을 정밀관찰한 후 피에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하고 1996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퀴크로락 제제의 대체 농약으로 농가에 가능한 일찍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잡초약은 앞으로 3년후에나 농가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영남농업시험장측의 설명이 있었다.

피의 효율적인 방제 대책 마련

피방제 전용제조제 농가실증시험포 설치 실적

계	간 답 줄 부 림						무논골부림
	소 계	정 일 품	푸 르 래 · 벚 시 고 린	피 안 커	길 자 비 골 드	하 이 킬	논 대 매
624개소 (234.3ha)	574 (215.5)	93 (35.2)	29 (11.0)	172 (63.9)	82 (29.9)	198 (75.5)	50 (18.8)

을 위해 고심중에 있던 본인은 관계전문가들과 숙의, 시험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여 생산업체와 지도기관이 합동으로 농가실증 시험포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됐다. 1995년 11월부터는 1996년 농가실증 시험포 설치계획 수립 및 참여 업체 선정에 착수하였고 1996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영남농업시험장과 농업과학기술원의 잡초약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1996년 3월 참여업체 대표와 농업과학기술원 전문가 및 식량작물과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참여업체는 동방아그로, 성보화학, 전진산업, 한국삼공, 동부한농 등으로 회사별 시험포 면적 및 설치개소수는 회사별 자체계획량을 반영하여 6백24개소 2백34.3ha로 확정하였다.

피 방제를 위한 쿼크로락제제의 대체방안이 전혀 없었던 때에 이와같은 시험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한 본인은 설레는 마음과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으며 본

인과 관계직원들은 그 의지가 자못 심대하였다.

두려움과 공포의 생활

제조제별 사용법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담당 농촌지도사와 시험농가에 배부 하였음에도 시험포 설치후 2~3주가 지난 5월하순부터 전국의 시험포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질의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질문의 요지는 일반제조제는 살포후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데 비해 새로 공급된 제조제는 살포후 1~2주가 지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과 바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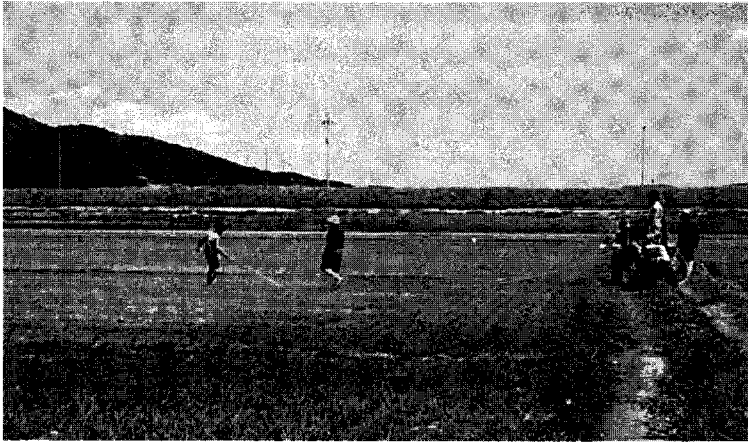
방제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제조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시험한 후 농가포장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선배들의 말씀이 귀를 울렸고 업체와 합동 시험사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던 본인으로서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겠다는 강박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6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벼농사 결과평가에서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얻게되어 정일품, 단골, 하이킬, 풀뚝, 피안커를 피 4잎까지 사용이 가능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들의 작황을 들고보고 있다.



건담직파 시범단지의 제초제 살포장면

한 적용제초제로 「1997년 벼농사 기술지도요령」책자에 수록하기로 방침을 정하게 됐다. 이 방침이야 말로 그동안의 초초와 후회를 일순에 뒤집는 쾌거였으며 본인의 30년 지도직 공무원으로 거둔 큰 수확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출장중 확인한 잡초방제 효과

올해 5월 21일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소정들의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10ha)를 돌아보았다. 당시 시범포에는 벼는 별로 안보이고 2~3엽기의 피, 바랭이 등 잡초가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는것을 본 본인은 가슴이 철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올해는 5월 강우량이 많아 제초제 살포 시기를 놓쳐 이렇게 전 시범포가 잡초밭이 됐다는 담당지도사의 이야기였다. 그간 제초제 처리내용을 들어보니 3~4일전부터 풀뚝을 살포했다고 하

나 죽은 잡초는 찾아볼 수 없었고 잎의 끝만 약간 붉은 색을 띄고 있어 만약 이 시범포에서 잡초방제를 실패하였을 때 일어날 파장을 연상하니 눈앞이 캄캄하였다.

본인이 시범포에 도착하자 인근의 단지회원이 찾아와 다른 방제대책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어 피 등 잡초는 몇일내 다 죽을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으나 본인의 말을 반신반의하는것 같았다. 농촌진흥청으로 돌아와서는 직원들에게도 이 내용을 말 한마디 못하고 고민속에 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기지에서 바라본 연기군 시범포

그러던 중 경북에 출장갈 일이 있었다. 상주, 선산, 김천을 돌아보고 상행열차에 오른 본인은 철길 옆에 있는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의 시범포를 내눈으로 다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전역

부터 달리는 기차 유리창을 통하여 연기의 직파재배시범 단지의 제초결과를 살펴 볼 결심으로 관측 준비를 했다. 연기군 시범포에 당도하여 살펴보니 지난달 잡초밭이었던 시범포는 풀 한포기 없이 깨끗한 들판으로 변모되어 있었음을 내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느꼈던 기쁨과 환희는 쾌감중의 쾌감으로 나의 뇌리속에 깊게 각인되어 농촌지도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성취에 대한 큰 보람으로 남게 되었다.

벼농사 평가회와 자신의 소리

금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벼농사 중간평가회의 종합토의때(영남농업시험장) 각도 작물지도과장들께서 “올해 피 4엽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초제가 안나왔다면 지난 5월에 강우량이 많아 제초제를 제때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조건이었는데 큰일 날뻔 했다”고 새로 보급된 제초제를 입을 모아 자찬하는 기회가 있었던것 또한 못내 잊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일은 올해를 계기로 5000년 역사 이래 벼농사의 ‘애물단지’였던 피를 방제할 수 있는 좋은 제초제가 뒤늦게나마 공급되어 이제 벼농사의 잡초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 같다는 의미있는 내용이 본인의 마음을 더욱 감격스럽게 하고 있다. **농약정보**